

일 주 문

지역 소외계층 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 현성 스님은 2월 6일 현성정사에서 독거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쌀 20kg 100포대를 전달했다.

스마트 힐링 수련회 개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3월 15~17일 화엄사 일대에서 스마트 힐링 수련회를 개최한다 (061)782-7600

풍경소리 명상문화강좌 개강
지하철 풍경소리 대표 혜자 스님은 2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안국역 풍경소리 강의실에서 마음챙김(Sati) 교실을 진행한다. (02)736-5583

통도사 박물관장 취임
통도사 안양암 김일 부에 스님은 1월 29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했다.

니능 실천 1000km 달리기 완주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2012년 11월부터 실시한 4대강 1000km 마라톤을 2월 2일 완주했다. (054)458-0755

내성천 생태 지킴이 발족
지음 스님은 2월 2일 내성천 습지와 생태를 보존·복원하기 위한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를 발족했다.

불교진흥원 화요연속강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2월 19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고미숙 고전평론가 초청 '몸의 치유 본능' 연속강좌를 개최한다. (02)719-2606

설맞이 나눔행사 진행
박수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인 회장은 설날을 맞아 2월 5일 부산진구 지역 형편이 어려운 220세대에게 쌀을 전달했다.

신임 조계종 중무원조합 위원장 선출

제19대 조계종중무원 조합위원장에 임주완 기획실 대외협력팀장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무원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창무)는 2월 5~6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입후보한 심 팀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62명 중 225명이 참여했으며 심 팀장은 찬성 213표, 반대 11표, 무효 1표를 받았다.

신종일 기자

“노동자들 아픈 마음까지 보듬겠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신년 기자회견



심리치유센터 설립 가시화
7일부터 매일 2차레 동사섭 법회
노동정책 개선안 마련도

“해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심리적 후유증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입니다. 올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사진)은 2월 4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비영리 심리치유센터를 개원한다.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심리치유센터는 명상과 불교 상담을 통해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3, 6, 9, 11월 4회에 걸쳐 전북 금산사에서 개최한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쳐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산사의 자연을 통해 마음을 달래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할 방

침이다.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불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들이 사찰과 센터에 와서 마음을 치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좀 더 일찍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도 향상되고 노동 문제

에 대한 지평도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위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많은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동사섭 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한다. 2월 7일부터 시작된 동사섭 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7시에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다. 법회에는 노동자 권익 향상을 기원하는 발원문과 관세음보살 정군이 이뤄지며, 종호 스님을 비롯한 노동위원 스님들이 법문을 할 예정이다.

노동위는 오는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노동자 초청법회, 11월에 산재와 자살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합동 천도재도 계획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한 장기 농성장과 노사분규 현장 방문도 이어나간다.

이밖에도 개신교 가톨릭 등 이웃종교와 불교NGO 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노동정책 개선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 시대 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업 중생입니다. 이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향유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교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엄격한 학사운영으로 영산재 전문가 양성할 터”

학제 새로 개편한
육천범음대 학장 원허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대학인 태고종 육천범음대는 명실공히 영산재 교육의 원조이자 산실이다. 이 육천범음대가 올해부터 학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육천범음대학 학장 원허 스님은 “올해부터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학제를 확대 개편합니다. 육천범음대학의 교육만 이수하면 어떤 불교의식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감히 교육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입니다.”라고 새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 우리 육천범음대는 신라때 범패를 들여온 진감선사의 맥을 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정통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곧게 이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육천범음대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교육기관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것도 바로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및 무용의 전문성을

기존 3년서 4년으로 학제 확대 개편
실기 위주 교육 편성...졸업시연 의무
학점은행제 도입해 강의 전문성 높여

높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원허 스님은 전문 양성 교육을 통해 불교 전통의식인 범패의 발전적 계승을 중점적 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형을 모르는 의식 구현은 껌대기를 차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사학의 탄탄한 교수진을 적극 활용해 교육과정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졸업시연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영산재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졸업시연도 필수적으로 졸업생들에게 시킬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기존의 소리와 이론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실기교육을 늘렸다.

그동안은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 한해 실습과정 1년을 추가로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2학년 과정에 상주권공재의식시연 과정을 추가로 넣어 실기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허 스님은 “대중적 눈높이에 맞춘 의식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범패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의식의 깊은 뜻을 제대로 구현한다면, 이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범패를 배우고 또 느끼려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한편 육천범음대는 2월 22일까지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02)392-3234

김주일 기자

동산불교대학 제42기 입학식



동산불교대학 42기 입학식과 명사초청법회가 동산불교회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무진장 스님이 법어를 통해 “불교공부도 시작이 반이니, 이미 입학식에 참석한 인연만으로도 큰 인연”이라며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불자로서 마치는 날까지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한국학대학원 박사는 축사에서 “동산불교대학 신입생이 된 것은 이미 정법불교와 인연지은 것”이라며 불교 대중화를 위한 포교사의 길을 걸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라오스서 대학 연합 봉사



동국대 봉사단인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 총장)' 학생들 25명이 1월 23일부터 10박 11일간 라오스 우뚝사이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신축 및 교육·문화교류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 소재 대학 6개가 연합해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는데, 동국대는 송실대, 세종대, 삼육대, 상명대, 명지대에 이어 릴레이 봉사활동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라오스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우뚝사이에서 그 지역 프영뱅크 중고등학교의 교사 신축 작업과 화장실 신축 공사 등에 참여했으며, 현지 아이들을 위해 △동요배우기 △미니올림픽 △액자 만들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3주년 법회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는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함께 2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국방회관 용산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과 포교위원장 지일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스님들과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는 국운융창과 장병 무운장구 기원법회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주요 내외빈들의 축사와 격려사, 범어, 군불총의 향후 비전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염불종 종헌선포문



사단법인 대한불교염불종 대법원 등기번호 001856 | 대법원 등록번호 274321-0029935 |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4호

恭惟 我宗祖 智旭禪師 大師께서 淨土의 正統法印을 嗣承하고 伽智靈域에서 宗幢을 揭揚하였고 九山門이 列開하고 五教派가 竝立하여 禪風敎學이 繼承되어 왔다.

我宗은 근대의 역불정착에도 불구하고 염불공덕의 수승하고 불가사의한 무한한 수명과 광명으로 고통 받는 중생에게 무한의 공덕과 지혜, 신통력과 수행으로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해명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켜 절대적 실재로서 교묘히 비추며 상적광토의 청정법신을 고양하며 정도불교의 성불도생을 실천해 왔다.

본 종은 이제 중명을 공칭하고 종헌을 제정하여 계법을 존승하고 이판(理判)을 주장하여 내로는 속조불이(宿鳥不二), 신토불이(身土不二), 성수불이(性修不二), 진응불이(眞應不二)케 하고 외로는 도생문호를 개창하여 염불수행을 향상일로 하니 일심불난으로 물러남이 없는 불퇴전(不退轉) 지위에 올라 오매일여로 정도왕생행을 구현하노라.

아중은 근대 한국불교의 내부적 도전과 외부적 시련을 이겨내고 한국불자들의 지지확보와 여망에 부응하여 시대를 증언하는 이정표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겠다는 자세와 혁신과 창조적 파괴로 교단의 청정과 승풍을 진작코자 마침내 정통에 왕생하는 염불종 종단 창종을 선포한다.

이에 대한불교염불종은 불기 2557(2013)년 2월 8일 종헌을 제정하고 교단의 청정성과 삼보호지의 기본들을 다져 한국불교가 가야 할 길을 준엄하게 개척하고 국민의 통합과 치유에 공헌하며 꾸준히 기여, 봉사하는 배려와 노력속에서 염불수행 납자의 가풍을 새롭게 견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상승 염불선으로 분별 떠난 무심함이 곧 진정한 염념 상속해와 견문각지에 자유자재한 자성불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염불종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참회, 권청(權請), 수희(隨喜), 회향(回向), 발원(發願),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 염천(念天), 염계(念戒), 염시(念施)의 큰 뜻을 받들어 철저히 수행하여 완성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여 모든 중생을 정토에 왕생하고자 한다.

대한불교염불종은 오직 믿음과 서원을 통해 일승의 묘한 과실로 부처님 명호를 지녀 42품의 무명을 모두 타파하여 예토세계를 부처님이 사는 최상의 실보장업토인 상적광토에 불국토를 건설하고자 창종을 선포한다.

이와같이 대한불교염불종은 심오한 법장과 비밀한 골수와 부처님의 심오한 보살만행의 지남(指南)을 통해 무생법인을 증득해 모든 불자에게 본래면목을 회향시켜 무시미래로 이 땅의 염불신앙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는 무간수(無間修) 수행으로 서방에 왕생함을 서원 증신성불하는 세연을 만들기 위해 근계시하(謹啓時下) 삼가 불초의 외호아래 불가사의한 공덕으로 우리 법손 단대의 건운과 향상일로의 변역을 기원하여 이 현장을 공포한다.

불기 2557년 음력 1월 1일

(사)대한불교염불종

창종주 벽 암 종정 월담 성인 총무원장 만공 호조

(사)대한불교염불종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전화 : 043)652-0331 팩스 : 043)653-0332